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6월 공식 출범

충북대 병원, 지원단 수탁기관으로 선정... 3년간 맡아 운영 필수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기대

충북대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에 앞장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6월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지원단 설치·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민간위탁 기관도 선정하는 등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공보건의

료 지원단'을 맡아 운영할 기관에 충북대학교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충북대 병원과 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위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3년이다.

충북대 병원은 직원 채용, 운영 규정·내규 마련, 예산 확보 등을 마친 뒤

6월 초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1단 2팀으로 구성된다. 단장 1명과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행정원 1명 등 총 6명으로 꾸려진다. 향후 10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실적체계 관리 모니터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도 지원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대전, 제주 등 12곳이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이 없는 지자체는 충북을 비롯해 세종과 전북, 경북, 충남이다. 이중 충북과 경북은 올해 설치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가구 생계비 지원

1가구당 50만원... 소득·재산 등 심사 거쳐 6월 중 현금 지급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 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제도인 긴급고용안정지원

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 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원이다. 소득,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대상 4배로 확대

복지 취약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 4만2500명 시범사업 실시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조기 발견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자가검사키트 시범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콜센터·대중교통·목욕장업 등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과 복지취약시설, 외국인 밀집지역, 대학·직장노동 경기부, 생산적 일손봉사, 경찰 지구대·소방안전센터 등이다.

애초 이들 시설 등에 종사하는 1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4만2500명으로 늘었다.

자가검사키트 물량도 확보했다. 이날 휴마시스㈜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3만2500명분을 기탁했다. 지난 4일에는 SD바이오센서㈜가 1만명 분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키트를 활용한 강화된 방역 조

치도 시행한다. 행사 개최 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 현장 근무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부서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자발적인 선제 검사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지난해 말 자가검사키트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정식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달 23일 국내 첫 조건부 승인 후 현재까지 충북과 서울 2곳이 자가 검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자가검사키트는 기존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15~30분 이내 바이러스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함께 PCR검사, 신속



휴마시스㈜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자가검사키트 3만2500명분을 충북도에 기탁했다.

로 보고 있다. 기존 유전자 증폭(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함께 PCR검사, 신속

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도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청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소

도내 대학 중 5번째 개소...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2억원 확보

충북도와 청주대학교는 11일 청주대 입학취업지원관 1층에서 종합적인 진로·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다.

지금까지 충북도는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으로 5개 대학(충북대, 세명대, 서원대, 한국교통대, 청주대)에 총 사업비 78억원 투입해 대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 및 일자리매칭 지원 등 다

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대는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도내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5년까지 총 10억원(국비 5, 지자체 2.5, 대학 2.5)의 사업비를 확보해 향후 5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취업에 꼭 필요한 입사지원서 작성방법과 면접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시간 라이브 자격증 취득강의 등을 제공한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에게는 도 자체사업으로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30대 보급

화면낭독소프트웨어·독서보조기·음성증폭기 등 총 116종

충북도는 디지털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13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또한 온라인 잡(JOB)카페, 취·창업 멘토링, 직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39세 이하 미취업 고졸 청년 50명을 연계해 계획하며, 취·창업 연계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취업장려금도 지급한다.

제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콜센터(☎ 1588-267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90%가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일부터 6월 1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6일 도 홈페이지에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20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

충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청년특화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청년여성 70

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직업 훈련과 취·창업 고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인 '미디어크리

에이터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충북에 주소지를 둔 39세 이하 미취업 고졸 청년 여성 20명이며, 영상촬영, 스토리텔링,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교육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다음 달 11일까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청춘잡담'에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womanhouse@hanmail.net)로 신청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아동위한 체계적 정책 빛났다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 지자체' 선정... 복지부장관 표창

제천시는 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0년 7월 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220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았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4개 기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정책 반

영을 위해 아동친화 전담조직 구성,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조례 정비 등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년차를 맞아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놀이·여가 문화 조성, 아동참여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등 6개 분야 18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 방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자료.

이상천 시장은 "이번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외국인 민원서비스 한 곳에서 제공

음성군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본격 운영

음성군이 지역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음성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에 위치

한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충주

지방, 음성경찰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한 곳에 모은 통합센터다.

그동안 군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은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경찰서에서는 범죄 상담과 범죄예방 교육을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통·번역, 상담,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가 충북에서 유일한 외국인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와 4개 의료기관이 13일 지역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학대피해아동 의료 지원 '맞손'

충북대병원 등 4곳 지정

청주시는 13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 지원

을 위해 4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성

모병원, 아이웰어린이병원, 운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4곳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병덕 시장과 최영석 충북대학교병원장, 반영역 청주성모병원장, 김엽 아이웰어린이병원장, 박성경 운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대표원장 최영락) 등이 참석했다.

4개 의료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신속한 의료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 시장은 "앞으로 학대피해아동이 신속히 회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청주시 보건소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다.

지원 범위는 신장질환과 관련해 수술비와 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등 사전검사비가 지원된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으로 선정 이전에 발생한 수술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거주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심사가 이뤄지며, 재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돼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수술명 기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를 지참해 청주시 관할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단양군, 아동·청소년 자립 위해 적극 지원

단양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 업무협약



단양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단양사랑-아이사랑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단양사랑-아이사랑 캠페인' 전반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양군 소재 기관·단체와 기업, 개인이 관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 구좌를 갖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며 향후 모여진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은 캠페인 제1호 후원자인 GP온라인유통·에라토미용실 전국영 대표가 지역의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해 20개월 간 매

월 50만원씩 총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선뜻 기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단양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위기가정 아동에게 긴급생계비 및 성장에 필요한 영양지원 등을 위해 후원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월 3만 원 이상 후원참여 사업장에는 나눔 현판을 전달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업무협약과 별도로 지역 내 학업·체육 분야 아동 4명을 위해 단양군에 지역인재양성 지원금 1천577만3천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류한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기가정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의 인재로 빠르게 성장하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7곳에 가림막 설치

한국가스안전공사 후원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열)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진천 지역아동센터에 가림막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광혜원지역아동센터, 풀안지역아동센터, 뽕밭지역아동센터,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진천시민지역아동센터, 진천지역아동센터 등 7개소를 대상으

로 진행됐다.

총 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번 가림막 설치로 지역아동센터 210여명의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림막 설치와 더불어 마스크도 함께 전달해 아동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임해중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열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노인복지관 사랑의 나눔상자 활동, 보건소 격려간식 지원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충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나선다

위치추적기 지원... 보호자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

충주시가 지역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실종된 발달장애인은 2만4319명 중 218명(미발견 77명, 사망 14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이 실종 신고가 74명으로 집계됐으며, 각종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

다.

이에 시는 우선 지적장애 및 자폐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 2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위치추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기와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위치추적기는 GPS가 내장된 신발 갈창형으로 발달장애인의 위치가

보호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발달장애인이 안심 존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곧바로 경고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위치추적기 보급의 최종 목표"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43-850-6822)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비,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영동군, AI·IoT 활용 주민 건강관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복지부 사업 도내 유일·최초 선정... 군민 건강 챙기기

영동군의 주민 건강서비스가 더 스마트하고 꼼꼼해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신개념의 미래형 건강사업이다.

충북도 내에서는 영동군이 최초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짜임새 있는 계획과 적극적인 유지의

지료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보건소는 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 및 사업에 활용되는 장비(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AI 생활스피커) 구입비, 운영비 등 총 3천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시켜 6개월 동안 어르신들의 일상 속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방문대상 집중, 정기관리군 노인 100여명이다.

대상자의 측정, 입력된 건강정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을 통해 전송되며, 이러한 건강자료를 방문건강관리 전담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영양, 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별 실천역량을 평가해 개별미션 등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상태 관련 이상 수치가 전송되면 전담팀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관리하게 된다.

군은 오는 8월경 참여자를 모집해,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군민의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 정착과 지역사회의 활력 조성을 위해 더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주민 건강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음조러든 영동군민의 건강관리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어르신의 자발적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천군이 위촉한 2기 아동참여위원들이 활동에 앞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2기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초·중·고 학생 30명 구성

2기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으로 구성된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첫 번째 원칙인 '아동의 참여'에 따라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된다.

군은 지난 3~4월 중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을 병행하여 관내 초

등학교 4명, 중학생 24명, 고등학교 2명 총 30명의 아동위원을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임기는 2년이며, 주요 역할은 아동관련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 참여는 물론 정책 개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아동정책학교를 통해 모둠별 분과활동을 진행하고, 각자 주제를 정하여 현장 모니터링과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을 만든다. 향후 군에서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아동정책 공모 대회인 '아동정책창안 한마당'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기에 이어 2기가 출발하는 만큼 아동참여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아동들이 서로 참여하고 싶은 아동 모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키다리 아저씨' (주)지명 김윤경 대표 기탁

어린이들에 응원메시지 보내

영동군의 '키다리 아저씨'라 불리는 (주)지명 김윤경 대표가 올해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으로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이면 영동어린이들에게 매년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5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코로나 후원금을 기탁하며 영동군과 영동어린이들에게 끊임



(주)지명 김윤경 대표 등이 영동군을 방문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박세복 군수에게 기탁했다.

없는 애정을 보내고 있다.

올해도 드림스타트아동 163명

에게 5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

제를 선물하고 어린이집, 지역아

동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용아동 각 가정에 1000만원 상당의 피자치킨을 배달해 주는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지역어린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취소되면서 더욱 꼼꼼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뛰어 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작게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며 "영동의 미래를 밝히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협약

괴산성모병원-서부병원 지정

괴산군은 지난달 28일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군수집무실에서 이차영 괴산군수와 괴산성모병원 김원태 부이사장, 괴산서부병원 박영숙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과 두 병원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정황적 증거에 대한

소견 제공,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할 경우 아동을 사건현장에서 즉각 분리해 신속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차영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학대 피해아동을



괴산군은 지난달 28일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가졌다.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

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한다

6월까지 삼보초 등 4곳 정비

증평군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6월까지 4억원을 들여 증평초, 삼보초, 죽리초, 도안초 등 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자신도색, 절삭 덧씌우기, 보도

정비,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표지판 교체, 미끄럼방지 포장 및 노면 표시 도색으로 식별이 쉽도록 한다.

또한, 증평중학교 앞 교차로에는 보도를 만들어 보행자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높인다.

군은 지난해는 2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 준수와 불법주정차가 없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옥천군,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 지원

생계급여수급 가구 월 10만원·청소년 25만원 군 내 201가구 혜택...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

옥천군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존중위소득 30% 이하)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 그동안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의 미혼모·부에게만 월 5만 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 5~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의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총 201가구로, 이 중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는 한부모가족은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와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증평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11월까지 멘토링 '징검다리' 역할... 지역사회 활력

증평군이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공동체 '매드(M.A.D)/ 대표 연명식'가 선정돼 진로탐색 멘토링 행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21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증평의 유명 베이커리인 이충백집 대표가 멘토로 참여해 '직장인이던 내가 어느덧 빵집 CEO'라는 주제로 진행돼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2회 진로탐색 멘토링 행사는

내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11월까지 매월 1회(총 7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멘토를 선정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최대 고민인 직업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이 소통하고 고민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을 나눌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탁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코로나 1년, 빈곤아동이 더 불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연구 결과 발표

만족도 하락·우울감 상승... 극단적 선택 고민도 증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졌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빈곤가구 아이들은 빈곤가구 아이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아동행복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아동·청소년 18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전후 아동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2017년 재단에서 조사한 아동행복지수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017년 7.27점(10점 만점)에서 2020년 6.93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행복감은 2017년(7.22점)과 2020년(7.24점)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우울·불안(3점 만점)은 2018년 1.17점에서 2020년 1.24점으로 상승했으며, 걱정(3점 만점)도 1.31점에서 1.56점으로 높아졌다.

평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2018년 전체의 1.4%에서 2020년 4.4%로 급증했다. 아동이 스스로 평가한 건강 상태는 2018년엔 5점 만점에 4.4점에서 2020년 3.84점으로 낮아졌다. 빈곤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아이들의 경우 빈곤가구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3점인 반면 빈곤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7.47점이었다.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 비교

구분(최고)	2017년	2020년
삶의 만족도(10점)	7.27점	6.93점
우울·불안(3점)	1.17점	1.24점
걱정도(3점)	1.31점	1.56점
자신의 건강 상태 평가(5점)	4.4점	3.84점
극단적 선택 생각 경험(응답 비율)	1.4%	4.4%

자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늘었다. '보호자가 회초리 같은 단단한 물건이나 맨손으로 때렸다' '보호자가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는 응답은 2018년 대비 각각 4.1%p, 4.0%p 증가했다. '보호자가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지 못했다'고 답한 아동들도 22.7%로 2018년에 비해 약 6%p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돌봄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로 코로나19 상황 속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혜택 가구 늘어나

연말까지 신규 지원대상에 총 15만7000가구 포함될 듯 내년부터 기준 전면 폐지... 기준 충족시 조사 없이 지원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크게 늘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대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

화로 연말까지 9만5000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7천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연장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절반 정부가 부담 7일 미만 입원·퇴원일 미정 사례 등 고려... 7일부터 시행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

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웠다. 개정 규칙은 이를 고려해 이미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바꿀 좀 더 여유를 줬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월 56만원 지급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대상 최장 6개월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3일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정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특별 지원 급여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

상으로 하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일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목표가 조기에 달성돼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며 취업애로계수도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명이 조기달성됨에 따라 31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청년디지털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존의 다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을 갖도록 정규직 채용과 1년의 지원 기간 등으로 체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지만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특수교사 확충 등 장애 아동 지원 확대

취학 전 장애 아동 지원...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도 건립

취학 전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 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 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

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특수교사로 임용될 때 어린이집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특수교사를 지원해 순회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연계해 미수검자에게 안내를 강화하고, 검진 항목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 현재 정부는 경남권·충남권에 재활병원 2개소와 강원권·충북권 등 8곳에 재활 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의 조기 발견을 홍보하고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위기 청소년 지원 '남학생 Wee센터' 개소

충북도교육청, 건강한 학교생활·가정 복귀 목적 설립 소규모 기숙형태 운영... 연계·친구 등 의뢰 통해 입소

충북도교육청은 4일 가정적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급자리인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청주시 사창동에서 문을 연 이 센터는 251.73㎡의 지상 2층 건물로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가정적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학교생활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센터의 입소 기간은 3개월

에서 6개월(1회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8명이다.

또한, 도내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개인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소규모의 기숙형태로 운영되며 이용기간(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내에서 수시로 입·퇴소가 가능하고 이용 학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정, 학교 복귀가 가능하다.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는 가정형 위센터에서 기숙하며, 원적교로 출석이 가능하다.

입소 방법은 지역 위(Wee)센터나 학교 연계 뿐만 아니라 유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관기관, 보호자, 친구 등을 통해서도 의뢰가 가능하다.

심(보호, 생활, 건강지원), 회복(상담지원), 성장(청소년 활동지원, 학업, 복귀지원, 사후관리)을 핵심가치로 센터는 사단법인 '유스투게더'에서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공적가치이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을 교육시설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의 공유된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공동모금회, 안전지원금 2억원 전달

아동 안전한 통학 지원 71곳 선정 경광등 등 개조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지원이 이뤄졌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13일 '2021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지원사업 수행교육 및 전달식'을 열고 71곳에 2억168만19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로 새로 포함된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흥철 사무처장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2021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지원사업'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선정기관 71곳은 사업수행교육을 시작으로 27일 통학차량 경광등, 하차확인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개조해 신고를 완료했다.

박흥철 사무처장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옥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발전 업무협약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 기대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희)과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봉기)는 옥천지역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옥천교육지원청은 옥천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공감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노인장애인복지관, 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

한 양질의 특수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문화예술 행사는 학교 현장의 인식 개선 및 공감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학부모 대상 성교육 지원 및 가족지원힐링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개 기관의 협약내용과 옥천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을 연계 추진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발전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양질의 특수교육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특수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노무문제 상담받고 해결하세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어깨동무노무사와 관계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어깨동무노무사와 체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와 어깨동무노무사(대표 최기용)는 지난달 20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무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협약을 진행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다양한 노무 상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답변

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어깨동무노무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에 대해 노무상담을 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는 충북복지넷(www.043w.or.kr) 사회복지 노무상담 코너를 통해 무료로 노무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화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노무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복지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노인학대 예방 도전과제' 운영

노인학대예방의날 맞아 6월 11일까지... 15일 결과 발표

충북도는 5회 노인학대예방의날(6월 15일)을 맞아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3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관련 도전과제를 운영한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상식을 겨뤄 볼 수 있는 '가로세로 낱말퍼즐 맞추

기'로 해당 퍼즐문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이나 도전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전과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숫자나 문자를 활용해 노인학대 상담전화 번호(☎1577-1389)를 꾸며보는 과제이다.

도는 도민들의 특목 튀는 아이

디어로 만들어질 도전 작품들을 통해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이메일(cb1389@hanmail.net), 문자 또는 카카오톡(☎010-4521-1389)으로 응모내용을 송부하면 된다.

이번 홍보사업에 참여한 도민들 중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발해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할 계획이다.

추첨결과는 6월 15일 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www.cb1389.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복지광장

서로 아는 쉬운 말의 사용

복지포럼

복지(福祉)는 타이밍이다!



사영숙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글이나 그림 또는 몸동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말은 보다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다. 말에는 의사소통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태도까지 전달이 되기에 말하는 이의 뉘앙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던 P교수의 이야기이다. P교수는 어느 날 학과 조교에게 '피자'를 발음해 보라고 하며, 영어 발음을 지적하여 조교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또 어느 날은 동료 후배 교수에게 '학위 논문'을 영어로 말해보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다. 교수라는 비교적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것을 조교나 후배 교수에게 요구하는 P교수의 '말' 행위로 보아 그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을 뿐 아니라 요즘 같은 사회분위기로 말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자료집 등에서 사용된 단어였기에 아이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혹여 00이만 그렇게 느꼈을까?'를 생각하면서 배움의 주체인 유아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진심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일화는 한 시민단체의 '회의 피실리테이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말이 회의진행을 돕는 사람임을 체득하였다.



강수성
영동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진전이 없는 요즘... 삶에 대한 무료함까지 느껴지는 나날이다. 페이스북의 친구들은 과거(코로나19 이전)의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활기찬 활동의 모습을 띄워놓고 소식을 종종 전한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모두가 이 지루하고, 힘든 암흑의 긴 터널을 하루 속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현장



박병호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나 발열 증세가 있으면 요즘은 '팬텀아?'라는 걱정 어린 말을 전달하기보다 '코로나 아니야?'라는 말을 먼저 건네며 마스크를 고쳐 쓰며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현시대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향후 우리 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도 시대의 상황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해왔지만, 미처 챙겨가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짊어지고 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이용자와 상담 진행 시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의사소통의 핵심요소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 상담자 뿐만 아니라 상담을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표정, 목소리, 거리 등의 제약에서 파악이 원활하지 않아 라포 형성이 어려우며 대상자의 정보 파악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상자와 상담자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 정보 파악의 기술을 개발하여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만 코로나19로 점차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단절을 감하는 활동가의 역할이 지속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시선과 인식의 다각화로 인한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을 함에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심심일만으로 일손을 보태어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 하는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찾아볼 수 없으며 당연히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커지며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원활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진입 장벽이 낮은 의사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응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으로써 사회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 19'라는 질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를 누구보다 자세하게 지켜보고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Advertisement for 'Lawyer's New Role'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featuring 'Free Lawyer's Assistant' (무료 법률홀닥터) service. Includes details on support content, service targ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ongcheongbuk-do Social Welfare Council.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A(60세, 남)씨는 어느 날 B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한 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A씨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위해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니, 자기가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두렵고 당황스러워 전화를 끊자마자 현금지급기로 달려가 수사관이라는 자가 불러준 계좌번호로 자신의 예금 1,0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습니다. 현금지급기에서 돌아서자마자 A씨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방송을 본 기억이 떠올라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011년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사기계좌로 입금된 돈을 불과 몇 분 사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금이 사기범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금 환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청 112 콜센터를 통해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계좌 명의인(대부분 사기범이 아닌 타인, 대표통장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데,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계좌의 잔액이 전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금 액수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지급될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환급원'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계좌 명의인(대부분 사기범이 아닌 타인, 대표통장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데,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계좌의 잔액이 전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금 액수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지급될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환급원'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계좌 명의인(대부분 사기범이 아닌 타인, 대표통장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데,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계좌의 잔액이 전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금 액수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지급될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스마일 봉사단, 환경 정화 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은 15일 오송 쌍청공원에 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봉사활동 봉사단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

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임했다. 스마일 봉사단은 2014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박종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봉사활동 봉사단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

을 실천해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해나가기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승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면 전화해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발송)
■ 기타: -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제출서류: 홈페이지 (www.ktnqwelfare.org) 참조
■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

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qwelfare.org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3차년도)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 (상시신청)
■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학대피해지원, 재해·재난구호비, 희망영양
■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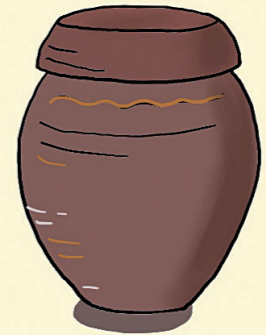
2021년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제7회 치매인식개선 시화·수기 공모전. Includes details on eligibility, submission methods, and prizes.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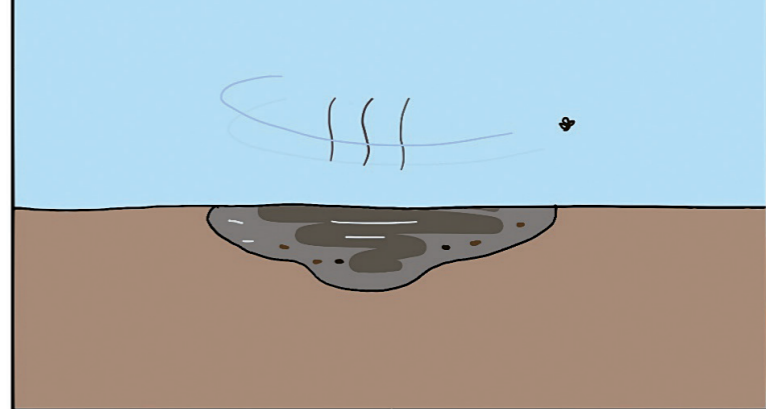
숙성

이창신 www.bokmani.com

장은 오래 묵을수록 좋지만



물은 오래 고여있으면 썩는다.



오래된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야 좋은 것이다.

자원 봉사자 모집

▶ 초등학교 학습지도

관리센터: 청북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53-5730

▶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청주청소년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31-2676

▶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99-5734

▶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66-4761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16-1365

▶ 진통공원 환경미화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216-3060

▶ 일반한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835-4288

▶ 가정방문 학습지원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856-2253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16-1391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84-0103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